

##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The Difference in Awareness among Parents of Preschoolers,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Child Care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the Readiness of Children to Attend Elementary School\*

방소영(So-Young Bang)<sup>1)</sup>

황혜정(Hye-Jung Hwang)<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parents of preschoolers, parents of school aged childr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testing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attending elementary school. First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notions regarding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entering school that were more specific than day care teachers and parents. Second, it was shown that effort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were most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elementary school level studies.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many respondents thought that there needs to be some form of testing of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school and the respondents further stated that this testing needed to be conducted by child care center teachers or experts in the field. Finally, it was shown that such a test of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school attendance should be developed by including questions on different areas of the intelligence, adaptability, function, tendencie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needs of preschoolers.

**Key Words** :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 준비도(Readiness)

---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sup>2)</sup>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Ba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94-6,  
Iui-dong, Suwon-si, Gyeonggi-do, 443-760, Korea  
E-mail : luchia1982@hanmail.net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이 아직 의무교육으로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무상교육화 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기관의 양적 확대는 물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평가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중요시하고 각 기관의 프로그램 질을 평가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직접 접하는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기능,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 하는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반면, 20년 전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50개 주의 주지사들은 버지니아 주 Charlottesville에서 6개 국가교육목표를 채택하고 선언했는데, 그 중 첫째가 ‘2000년 까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학습준비를 갖추어 학교학습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National Education children in America will start school ready to learn).’라는 것이었다(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1).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1996년 ‘의무교육 시작 전 바람직한 유아의 교육 결과(The Desirable Outcome for children’s Learning on Entering Compulsory Education,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1996)’를 교육정책에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발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소위 유아교육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 의무교육 시작 전에 유아가 어느 일정 수준의 교육의 결과를 습득하고 있어 학교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육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유아교육과 학교준비는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외의

사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며, 가정에서도 취학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성공적으로 학교학습에 임하고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능력은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는지, 유아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인지 또한 그 능력을 누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화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결국 학교준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념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유아가 어느 정도 터득했는가를 의미하는 준비도라는 개념은 Pestalozzi(1898)가 그의 저서에서 유아는 8세 전후에 언어의 시각적 형태에 대해 우연한 것 이상의 관심을 보인다는 논의 제기 후, 1925년 미국의 NSSE 연감(Twenty-four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Report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Reading)에서 준비도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읽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읽기준비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읽기 외의 타 영역에도 준비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Youn, 1994).

준비도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관련된 이론이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숙주의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숙주의론적 입장에서는 준비도는 성숙단계에 따른 준비여부에 의한 것으로 유아에게 제공되는 모든 활동은 유아가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었을 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행동주의론적 입장에서는 준비도를 강화 가능성과 유기체 요구와의 합치 결과로 보고 외적인 자극에 의해 특정학습이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은 유아

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준비도를 향상시키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발달적 성숙의 단계를 인정하되 개체와 인지구조를 자극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Gordon, 1982). 성숙주의적 입장이나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도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 유아는 입학할 유예하거나 보다 구조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NAEYC는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유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NAEYC, 2004)하면서, 준비도검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에서 유아를 배제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즉, 최근에는 준비도에 대한 관점이 성숙주의나 행동주의적 접근보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고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구성주의 입장보다 성숙주의나 행동주의적 입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측정된 수준에 따라 유아의 입학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준비도에 관련해 성숙주의적 입장이나 행동주의적 접근방식은 퇴색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준비도의 요소나 측정 방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검사도구를 통해 유아를 교육에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닌 유아의 능력을 찾아주고 비교적 부족한 부분을 찾아 교육현장에서 이를 보완해 줌으로써 의무교육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준비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대개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즉 학교 입학에의 결정요인, 적응을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서, 신체적으로는 신장, 체

중과 같은 간접적 요인과 함께 독립성과 자주성이 갖춰져야 하고, 인지적으로는 의사소통 기술, 읽고 쓰는 능력, 학습기술과 전략 등이 갖춰져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협동과 공유 능력, 행동 규준에 대한 지식과 행동 관리 능력, 동기, 자기평가, 또래관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Pandis, 2001). 또한, North Carolina 교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동들이 학교에 대한 압박감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정서적·신체적 능력이 중요하며, 이에 학교 준비도 평가에 있어 신변, 사회적 기능, 지적 기능, 건강과 같은 영역의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다(<http://www.smartstart-nc.org/parents/school.htm>). 아동들의 사회적,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기능에 대해 기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Maryland주에서 학교 준비도 구성요소를 수집하여 아동 평가에 활용한 WSS(Work Sampling System)에서는 사회개인적 발달, 언어와 문해력,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 신체적 발달의 7가지 영역(Crenson, 2001)이 논의되고 있다.

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무엇으로 한정 짓는가에 따라 검사도구의 명칭 역시 달라진다. 취학전 유아의 입학 준비수준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는 크게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준비도에서는 유아가 초등학교의 초기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달적 성숙상태와 기초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도(Park, Kang & Jang, 1987)를 측정하고자한다. 또한 학습준비도의 개념은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수요인으로서 학습의 기초기능이 강조되는 좁은 의미(Choi, 2001; Kagan, 1990; Kwon, 1998)로 해석된다. 반면, 학교준비도는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이나 교육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신체적, 사회

적 발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Crnic & Lamberty, 1994; Youn, 1994, 1995), 초등학교 생활을 대비하는 전반적인 요소를 측정하고자 한다(Park et al., 1987).

이처럼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과거에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취학 준비도에 대한 정의와 범주 역시 오랜 시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준비도에 대한 초기 관점은 학습준비도가 의미하는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인지적인 기술력에 집중되어져 왔다(Snow, Burns, & Griffin 1998). 하지만 근래에는 인지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특성까지 준비도에 포함시키는 즉, 학교준비도에 더 가까운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Huffman, Mehlinger & Kerivan, 2000; Kim, 2003). 본 연구자 역시 취학 전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도는 성공적인 학업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적능력 및 기술, 사회 정서발달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수준을 일컫는 용어로 학교준비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준비도는 발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중요시하고 연령에 걸맞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더욱 중요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학습능력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학교준비도에 필요한 요소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중을 두는 영역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학교준비도의 내용 및 수

준과 유아의 부모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준비도의 내용 및 수준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학습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정작 유아들은 입학 후 학업내용이 쉽고 지루하게 느껴져 학교공부나 생활에 흥미를 잃는 등의 사회문제를 접하기도 한다.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발달 수준이 요구됨에 반해, 실제로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는 주관적인 기준 하에 학교준비도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혹은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과 초등교육 기관의 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Jung & Lee, 2003). 그러므로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Kim(2003)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준비도의 요소를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 및 태도 등 5가지로 추출하고 이에 맞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요소별 내용을 세부화 하였다. Kim(2003)의 연구 및 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 모두 적응적인 부분이 준비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부모의 경우 실제로는 지식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Chi, Jung, Jung, An & Park, 2006). 또한 만5세 유아, 및 부모 그리고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준비도 역시 차이가 있었는데, 교사는 적응, 독립성, 자조능력이 준비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제공해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교육내용과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준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반면 유아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말하는 혹은 생각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입학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었다(Woo & Kwon, 2010).

학교준비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준비도 검사 도구 개발과 관련된 소수의 연구와 준비도에 대한 요소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결과를 활용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유아의 준비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준비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유아기 자녀가 있으며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본 경험이 없는 부모와 취학경험이 있는 부모,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준비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준비도 개념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준비도 검사도구의 경험 및 필요성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준비도 검사 실시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부모의 경우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으로 자녀의 취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부모와 첫째 자녀가 유아기 특히 만5세인 부모로 나누어 연구대상을 구성하였으며, 2012년 1월 1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유아의 부모에게는 기관장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세미나에 참여한 교사 및 동계방학 중 근무 중인 교사에게 직접 방문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작성 후 바로 회수 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는 각각 25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율과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Table 1, Table 2,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Table 1> Questionnaire recovery ratio

		Distributed	Retrieval	Total
Parents	Parents of preschoolers	250(100.0)	134(53.6)	231(92.4)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97(38.8)	
Teachers	Child care teachers	250(100.0)	101(40.4)	214(85.6)
	Elementary school teacher		113(45.2)	

&lt;Table 2&g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Parents of preschoolers (N = 134)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N = 97)
Relationship	Father	13( 9.7)	2( 2.1)
	Mother	121(90.3)	95(97.9)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	56(41.8)	45(46.4)
	College graduate	39(29.1)	38(39.2)
	University graduate	36(26.9)	8( 8.2)
	No response	3( 2.2)	6( 6.2)
Jobs of the respondents	Professional practice	12( 9.0)	6( 6.2)
	Office worker	16(11.9)	12(12.4)
	Self employed	5( 3.7)	2( 2.1)
	Factory worker or laborer	7( 5.2)	10(10.3)
	Day laborer and misc.	2( 1.5)	8( 8.2)
	Homemaker or no occupation	91(67.9)	57(58.8)
	Misc. or no response	1( 0.7)	2( 2.1)

&lt;Table 3&g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Child care teachers (N = 101)			Elementary school teachers (N = 113)			
Place of work	Private child care centers	26 (25.7)	Place of work	Public elementary school	113 (100.0)	
	Public child care centers	14 (13.9)				
	Private kindergartens	51 (50.5)				
	Public kindergartens	8 ( 7.9)				
	Etc.	2 ( 2.0)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1 year	24 (23.8)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1 year	0 ( 0.0)	
	More than one year - less than 3 years	17 (16.8)		More than one year - less than 3 years	20 (17.7)	
	More than 3 years - Less than 6 years	14 (13.9)		More than 3 years - Less than 6 years	68 (60.2)	
	More than 6 years - Less than 10 years	16 (15.8)		More than 6 years - Less than 10 years	15 (13.3)	
	More than 10 years	30 (29.7)		More than 10 years	10 ( 8.8)	
Work experience of teachers of age 5 children	Less than 1 year	49 (48.5)	Work experience of 1st grade	Less than 1 year	38 (33.6)	
	More than 1 year - Less than 3 years	28 (27.7)		More than 1 year - Less than 3 years	36 (31.9)	
	Over 3 years - Less than 6 years	10 ( 9.9)		Over 3 years - Less than 6 years	29 (25.7)	
	Over 6 years - Less than 10 years	6 ( 5.9)		Over 6 years - Less than 10 years	6 ( 5.3)	
	Over 10 years	8 ( 7.9)		Over 10 years	4 ( 3.5)	
Education Level	Completed training institute	5 ( 5.0)	Education level	University graduate	88 (77.9)	
	2 Year college graduate	28 (27.7)		Graduate school graduate	23 (20.4)	
	3 Year college graduate	24 (23.8)			No response	2 ( 1.8)
	University graduate	25 (24.8)				
	Graduate school graduate	16 (15.8)				
No response	3 ( 3.0)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취학 경험이 없는 유아기자녀부모는 총 134명, 자녀의 취학 경험이 있는 학령기자녀부모는 97명으로 총 231명이었으며, 교사의 경우 유아교사 101명, 초등교사 113명으로 총 214명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와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im(2003), Park(2004), Chi 외(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및 구성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 박사과정 3인이 검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변인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 외에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준비도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1개), 학교준비도 향상 방법(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1개), 학교준비도검사의 필요성(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2개), 학교준비도의 책임(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1개), 학교준비도 경험유무(선택형문항 2개, 개방형문항 3개), 학교준비도 검사 실시 필요성(선택형문항 1개), 학교준비도 검사 실시지(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1개), 학교준비도의 요소(선택형문항 1개, 개방형문항 1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 모두 사용하여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연구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9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증, F-검증 및 Tur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학교준비도 개념에 대한 유아기자녀부모, 학령기자녀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 차이

유아가 초등학교 진학 시 준비하도록 요구되는 발달수준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이름으로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chi^2 = 50.50, p < .001$ ). 유아기자녀부모와 학령기자녀부모, 유아교사는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라는 용어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그 외 응답으로는 학교준비도 보다는 학습준비도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학습준비도가 적합하다, 학교준비도가 ‘적합하다’, ‘모두 적합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준비도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lt;Table 4&g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erminology

	Adequacy of learning readiness	Adequacy of school readiness	All adequate	All inadequate	No response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27 (20.1)	21 (15.7)	71 (53.0)	9 (6.7)	6 (4.5)	134 (100.0)	50.50***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25 (25.8)	12 (12.4)	49 (50.5)	5 (5.2)	6 (6.2)	97 (100.0)	
Child care teachers	21 (20.8)	19 (18.8)	54 (53.5)	3 (3.0)	4 (4.0)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34 (30.1)	33 (29.2)	30 (26.5)	14 (12.4)	2 (1.8)	113 (100.0)	
Total	107 (24.0)	85 (19.1)	204 (45.8)	31 (7.0)	18 (4.0)	445 (100.0)	

&lt;Table 5&g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method of application of preparation for school

	Instruction by parents	Activity of child care centers	Special activity within child care centers	Visitation using home study	Home visitation special activity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87 (64.9)	45 (33.5)	1 (0.7)	1 (0.7)		134 (100.0)	61.02***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61 (62.9)	36 (37.2)				97 (100.0)	
Child care teachers	56 (55.4)	41 (40.6)			4 (4.0)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87 (77.0)	18 (16.0)	8 (7.1)			113 (100.0)	
Total	291 (65.4)	140 (31.5)	9 (2.0)	1 (0.2)	4 (.9)	445 (100.0)	

비율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진학준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지도, 유아교육기관의 활동,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문화센터, 가정방문 학습지, 가정방문 특별활동 등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91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이 중요하다 140명(31.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중요하다



&lt;Table 6&gt; Differences in perception regarding additional educational activity other than child care centers

	Needed	Not needed	No response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85(63.4)	43(32.1)	6(4.5)	134(100.0)	47.91** *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50(51.5)	40(41.2)	7(7.2)	97(100.0)	
Child care teachers	34(33.7)	67(66.3)	-	101(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41(36.3)	72(63.7)	-	113(100.0)	
Total	210(47.2)	222(49.9)	13(2.9)	445(100.0)	

&lt;Table 7&g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readiness

	Parents	Child care teachers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partment of education	Government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104 (77.6)	3 (2.2)	2 (1.5)	5 (3.7)	20 (14.9)	134 (100.0)	28.93***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72 (84.6)	2 (2.1)	-	2 (2.1)	11 (11.3)	97 (100.0)	
Child care teachers	89 (88.1)	8 (7.9)	-	-	4 (4.0)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85 (75.2)	8 (7.1)	-	2 (1.8)	18 (15.9)	113 (100.0)	
Total	340 (80.9)	21 (4.7)	2 (0.4)	9 (2.0)	53 (11.9)	445 (100.0)	

고 응답한 사람은 9명(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율이 높았으며, 유아기자녀부모와 학령기자녀부모는 학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9%, 62.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유아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반면, 유아교육기관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

적으로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61.02, p < .001$ ).

유아의 초등학교 진학준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유아기자녀부모와 학령기자녀부모의 절반 이상 응답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준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것 외의 다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 두 배로 많게 나타나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준비수준 향상을 위한 특별활동

의 필요성에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기자녀 부모가 유아교육기관 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낀 비율은 초등학교사 뿐만 아니라 학령기자녀 부모보다도 높아 취학전 자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47.91, p < .001$ ).

다음으로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준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주체에 대해 묻은 전체 결과에서는 '학부모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응답이 340(8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1.9%)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가 가장 많이 맡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교사라고 응답했으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준비도의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는 유아의 진학준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묻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은 유아교사는 학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및 초등학교사 집단 모두 초등학교사 진학준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기 전에 학교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태도 및 기초학습수준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사는 학교적응능력이나 수준이 뒤쳐진 유아에 대해서는 일차적 책임이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hi^2 = 28.93, p < .001$ ).

## 2. 학교준비도 경험 및 필요성에 대한 유아기자녀부모, 학령기자녀부모, 유아교사, 초등학교사의 차이

학부모와 교사에게 취학준비 관련 검사 도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유아기자녀부모의 70.9%가 학습준비도 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학령기자녀부모의 46.4%가 두 가지 검사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부모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취학준비검사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간접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경우 학부모에 비해 많은 응답자가 취학준비 관련 검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 유아교사의 75.2%가 학습준비도 검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18.8%는 학습준비도 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사 역시 상당수가 관련 검사도구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사의 68.1%가 학습준비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24.8%는 학습준비도 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유아교사 보다 많은 비율의 초등학교사가 취학준비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도 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아기자녀 부모 13.4%, 학령기자녀부모 28.9%, 유아교사 18.7%, 초등학교사 5.3%로 나타나 초등학교사가 두 가지 검사 도구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50.56, p < .001$ ).

전체 응답률을 살펴보면 학습준비도 검사만 들어본 응답자는 40.7%였으며, 학교준비도 검사만 들어본 응답자는 2.0%, 모두 들어본 경험이

&lt;Table 8&gt; Differences in indirect experiences of readiness test

	Only heard of learning readiness	Only heard of school readiness	Has heard about everything	Has never heard about anything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19(14.2)	2(1.5)	18(13.4)	95(70.9)	150.56***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20(20.6)	4(4.1)	28(28.9)	45(46.4)	
Child care teachers	66(75.2)	1(1.0)	19(18.8)	16(15.8)	
Elementary school teachers	77(68.1)	2(1.8)	6( 5.3)	28(24.8)	
Total	181(40.7)	9(2.0)	71(16.0)	181(41.3)	

&lt;Table 9&gt; Differences in direct experience of readiness test

	Has experience	Does not have experience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6( 4.5)	128(95.5)	26.75***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6( 6.2)	91(93.8)	
Child care teachers	25(24.8)	76(75.2)	
Elementary school teachers	18(15.9)	95(84.1)	
Total	55(12.4)	390(87.6)	

&lt;Table 10&g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need for the readiness test

	Very unnecessary	Unnecessary	Average	Necessary	Very necessary	M (SD)	Total	<i>F</i>
Parents of preschoolers	4 (3.0)	18 (13.4)	33 (24.6)	57 (42.5)	22 (16.4)	3.6a (1.0)	134 (100.0)	8.90***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3 (3.1)	10 (10.3)	39 (40.6)	38 (39.6)	6 (6.2)	3.4a (0.9)	97 (100.0)	
Child care teachers	-	4 (4.0)	19 (18.8)	50 (49.5)	28 (27.7)	4.0b (0.8)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2 (1.8)	14 (12.4)	33 (29.2)	50 (44.2)	14 (12.4)	3.5a (0.9)	113 (100.0)	
Total	9 (2.0)	46 (10.3)	124 (22.9)	195 (43.9)	70 (15.7)	3.6 (0.9)	445 (100.0)	

- a,b is the results of the post Turkey HSD test

있는 응답자는 16.0%로 전체 응답자의 58.7%가 학교준비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그 외 41.3%의 응답자

는 학습준비도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습준비도 검사를 접해본 응답자와 학교준비도 검사를 접

<Table 11>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whether or not experience in testing is needed

	Very Unnecessary	Unnecessary	Average	Necessary	Very Necessary	평균 (SD)	Total	t
Has experience	-	2 (3.6)	5 (9.1)	35 (63.6)	13 (23.6)	4.1 (.69)	55 (100.0)	5.03***
Does not have experience	9 (2.3)	44 (11.3)	119 (30.6)	160 (41.1)	57 (14.7)	3.5 (1.0)	390 (100.0)	
Total	9 (2.0)	46 (10.4)	124 (27.9)	195 (43.9)	70 (15.8)	3.6 (0.9)	445 (100.0)	

해본 응답자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유아의 진학준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습 준비도 검사나 학교준비도 검사를 받아보거나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준비도 관련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학부모에 비해 준비도 검사를 접해 본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도 관련 검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검사를 경험했는지를 개방형문항으로 추가적으로 묻은 결과 응답 내용에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경우 모두 유아교육기관에서 검사도구를 접했다고 응답했으며(유아기자녀부모(100.0%), 학령기자녀부모(100%)), 유아기자녀학부모의 33.3%는 상담기간에 준비도 검사를 받아봤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유아기자녀부모의 66.7%, 학령기자녀부모의 100.0%는 만 5세반으로 진학하기 전에 준비도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유아교사의 경우 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때나(63.6%) 학기마다(36.4%) 1회 씩 준비도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1학년 입학직전(25.0%)이나, 1학년 초기(50.0%), 혹은 2학년 진학시기(25.0%)에 준비도 검사를 직간접

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유아가 아닌 특수아동을 위한 준비도 검사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나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검사도구의 실시 시기나 내용이 초등교사가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준비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가(매우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 필요(5점))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묻은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준비도 관련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응답 범주 중에서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해 살펴본 결과, 유아기자녀부모 79명(58.9%), 학령기자녀부모 47명(48.5%), 유아교사 78명(77.2%), 초등교사 64명(56.6%)이 학습준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와 ‘매우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유아기자녀부모 22명(16.4%), 학령기자녀부모 13명(13.4%), 유아교사 4명(4.0%), 초등교사 16명(14.2%)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교준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로 나타났다( $F = 8.90, P < .001$ ). 즉, 유아교사는 유아기자녀부모, 학령기자녀부모 그리고 초등교사와는 학교준비도 검사 필요성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있었는데, 유아교사는 다른 집단보다 학교준비도 관련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준비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Table 9에 나타난 검사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교준비도 관련 검사를 자녀가 받은 적이 있는 학부모나 유아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준비도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비도 검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필요성 평균 점수는 4.1점( $SD .69$ )이었으며, 준비도 검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의 평균이 3.5점( $SD 1.0$ )으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0.6점 높게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5.03, P < .001$ ).

### 3. 학교준비도 실시자 및 요소에 대한 유아기자녀부모, 학령기자녀부모,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유아를 대상으로 학교준비도 검사를 실시할 사람으로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17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관찰자 및 검사자’라는 응답이 154명(34.6%)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아의 부모’가 실시해야 한다 74명(16.6%), 1학년 담임교사가 실시해야 한다 43명(9.7%)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아기자녀 부모집단과 유아교사 집단은 유아교사가 학교준비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관찰자가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학령기자녀 부모와 초등교사는 전문관찰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치했으나 유아의 부모가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취학무경험 부모가 훨씬 높아 차이를 보였다. 즉, 유아기자녀 부모와 학령기자녀 부모 그리고 유아교사의 경우 검사를 실시할 사람으로서 유아교사, 전문검사자, 유아의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등교사의 경우 유아교사나 전문검사자가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왜 측정자로서 적당한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59명의 응답자가 응답했다. 이들 응답을 비슷한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부모가 학교준비도 관련 검사 측정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유아의 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준비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3.4%)’와 ‘유아를 가장 잘 알기 때문(6.8%)’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유아교사가 측정자로서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유아와 가까이 지낸 시간이 길기 때문에(3.4%)’라는 응답과 ‘유아에 대한 발달 및 흥미에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17.0%)’,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5.1%)’ 그리고 ‘유아에 대해 가장 잘 알면서도 객관적이기 때문(11.9%)’이라는 네 가지 범주의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유아의 취학준비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1학년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

<Table 12>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ose assessing the readiness test

	Parents	Child care teachers	1st grade teacher	Professional tester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26 (19.4)	56 (41.8)	15 (11.2)	37 (27.6)	134 (100.0)	30.00***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20 (20.6)	32 (33.0)	7 (7.2)	38 (39.2)	97 (100.0)	
Child care teachers	24 (23.8)	38 (37.6)	13 (12.9)	26 (25.7)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4 (3.5)	48 (42.5)	8 (7.1)	53 (46.9)	113 (100.0)	
Total	74 (16.6)	174 (39.1)	43 (9.7)	154 (34.6)	445 (100.0)	

<Table 13>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scope of readiness test

	Knowledge	Adjustment	Skills	Disposition	Rules	Total	$\chi^2$
Parents of preschoolers	26 (19.4)	84 (62.7)	2 (1.5)	12 (9.0)	10 (7.5)	134 (100.0)	64.03***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24 (24.7)	38 (39.2)	4 (4.1)	19 (19.6)	12 (12.4)	97 (100.0)	
Child care teachers	5 (5.0)	70 (69.3)	11(10.9)	9 (8.9)	6 (5.9)	101 (10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12 (10.6)	62 (54.9)	19(16.8)	8 (7.1)	12 (10.6)	113 (100.0)	
Total	67 (14.7)	254 (57.1)	36 (8.1)	48 (10.8)	40 (9.0)	445 (100.0)	

(13.6%)’이라는 응답과 ‘1학년 생활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3.4%)’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초등교사가 객관적이며 이들이 측정해야 결과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1.6%)’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검사자가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11.9%)’하고 ‘학교준비도에 대한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13.6%)’이며,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6.8%)’라고 응답했다.

준비도 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능력을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 등 5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지식’은 언어와 수에 대한 이해 및 일상 생활에서의 기초개념을 의미하고, ‘적응’은 새로운 또래·환경에의 적응여부, ‘기능’은 기본적인 자조생활능력 및 대소근육 운동기능이라고 제시해주었다. 또한 ‘성향’은 유아의 정서적 특성 및 학습·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규칙 및 습관’은 규칙준수 및 예절, 질서, 위생, 안전, 자주적 실천을 포함한다.

우선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능력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25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식능력이 67(14.7%)명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향(10.8%), 규칙(9.0%), 기능(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아기자녀부모는 적응(62.7%)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식(19.4%), 성향(9.0%), 규칙(7.5%), 기능(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자녀부모는 적응(39.2%), 지식(24.7%), 성향(19.6%), 규칙(12.4%), 기능(4.1%)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유아교사의 경우 준비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적응(69.3%)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10.9%), 성향(8.9%), 규칙(5.9%), 지식(5.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 역시 적응(54.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16.8%), 지식(10.6%)과 규칙(10.6%), 성향(7.1%)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유아기자녀 부모, 유아교사 그리고 초등교사는 적응 영역을 그 외 영역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령기자녀 부모의 경우 적응영역뿐만 아니라 지식 영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 = 64.03,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수준을 평가하는 준비도 검사에 대해 자녀의 취학 지도 경험이 없는 유아기자녀 부모와 자녀의 취학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학령기자녀 부모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학습준비도 및 학교준비도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준비도 개념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의 준비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의 명칭으로는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하거나 학습준비도가 더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실제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준비도의 구성요소는 학교준비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도구의 명칭에 있어 유아기자녀 부모와 학령기자녀 부모 그리고 유아교사는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의 개념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으나 초등교사는 개인이 생각하는 진학을 위한 필요 요소에 따라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사실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학습준비도란, 취학을 앞둔 유아가 초등학교의 초기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발달적 성숙상태와 기초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도(Park et al., 1987)를 의미하며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수요인으로서 학습의 기초기능이 강조되는 좁은 의미(Choi, 2001; Kagan, 1990; Kwon, 1998)로 해석된다. 반면 학교준비도란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이나 교육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Youn, 1994, 1995; Crnic & Lamberty, 1994), 초등학교 생활을 대비하는 전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Park et al., 1987).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교준비

도검사라는 용어 보다 학습준비도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대부분 학습준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 Go & Lee(1968)의 학습준비도 검사를 최초로 준비도 관련 검사도구가 개발되기 시작되었고, Kim & Yeo(1978)는 지식, 신체 개념, 정서적 지각, 놀이지각, 시각-운동협응, 지시순종, 기억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학습준비도 검사를 제작하였다. Lee(1979)는 미국의 CPI검사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학교준비도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사회적 반응, 연상적 어휘, 수개념, 감각개념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Lee & Kim(1981)은 일반상식, 협응능력, 변별력 등을 포함한 학습준비도 검사를 개발하였고, Park, Kang & Jang(1987)은 운동협응력, 변별력, 기억력, 개념형성, 이해력을 포함하는 검사를 바탕으로 전국 표준화를 시킨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에도 Youn(1995)의 학습준비도 검사, Kwon(1998)의 Phelps 유아학습준비도 검사가 있으나 유아의 사회성이나 정서를 포함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없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인지적인 기술력이 학교준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집중 받아왔고(Show, Burns, & Griffin 1998), 학교준비도 검사도구의 미개정과 개발의 부재 등이 학교관심도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근래에는 인지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특성까지 준비도에 포함하는 학교준비도에 더 가까운 범주화를 하고 있

음(Huffman, Mehlinger & Kerivan, 2000; Kim, 2003) 고려할 때 앞으로 개발 될 준비도 검사도구의 명칭 및 내용은 학교준비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아의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학교사 모두 학교준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응이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지식과 더불어 규칙과 유아의 성향이 학교준비도에 필요한 3번째 요소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참가자들 역시 학교준비도를 측정할 때에는 학업적인 영역 외의 다양한 발달 영역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흐름과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Park(2007)은 학교준비도 검사에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으나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이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역시 정확한 준비수준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준비도 검사도구를 접하기 어려우며 학교준비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준비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준비도 검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생활은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준비수준이 평가되어져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준비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고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 역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아의 부모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들은 초등학교 취학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 역시 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부



분은 학교준비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도라는 용어도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검사도구를 접해본 부모는 더더욱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준비도 검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필요하하다고 응답해 유아기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몇몇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경험의 질, 양육환경이 좋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도는 높았다(Park, 2010).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준비도 역시 높다(Lee, 1986; Janus & Duku, 2006)고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따스함, 수용, 적절한 통제와 같은 사회적 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능력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 이는 결국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ill, 2011), 유아교사와 유아의 질은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의 주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Palemo, Hanish, Martin, Fabes & Reiser, 2007). 하지만 유아의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만 묻는 것은 유아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학교준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준비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유아교육기관의 활동이었

으며 취학준비에 대해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는 의견도 많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부모가 일차적 책임을 맡고 교사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이 의무화되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접하는 만5세 유아의 교육성과 즉, 학교준비도는 교육을 제공한 사람과 더 나아가 교육과정을 제공한 주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이 시점에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유아의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사이에서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감과 향상 방법을 대부분 부모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교사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서 교사와 유아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교사와 유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고(Park, 2012),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학생은 교사와 갈등관계이거나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보다 문제행동의 발생율이 낮고 학교 다니기를 좋아하며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Birch & Ladd, 1997)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준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또래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자조생활능력 및 대소근육 운동 기능 즉, 적응과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육 외에 다른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도 비슷했으며 학교준비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지도라는 것에도 일치하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반면, 유아교사는 학교준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모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했으나 초등학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지도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학교준비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가 적응과 기술이라는 데는 일치하지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방법과 장소에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사의 경우 1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본생활규범, 사회적 관계영역, 적응 영역과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고 학교 내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고 놀이와 표현의 기술영역이 중요하고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위와 같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은 만 5세 누리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체운동건강영역과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이나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응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영역이나, 자연탐구 영역 그리고 신체운동건강영역에서 기술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교육과정의 교류는 실제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理想)으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학교준비도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준비도 경험 및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준비도 관련 검사 도구를 접한 비율은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아교사와 초등학교사가 접해보거나 알고 있는 학교준비도 검사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경우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갈 경우 자체적으로 가위질하기, 색칠하기, 그리기 등의 활동이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아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검사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사의 경우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해당 장애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판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준비도 검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준비도 검사는 유아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과 적응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유아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양이 달라지고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와 초등학교사가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음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 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아 곧 학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학교준비도에 대한 일치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진정한 유아중심적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많은 응답자가 학교준비도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약 60.0%가 준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검사를 자녀가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나 유아에게 검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 교사일수록 준비도 검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사 도구를 접하면서 검사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내용 그리고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검사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의 5.3%만이 자녀가 준비도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 응답자의 약 60.0%는 학습준비도 검사와 학교준비도 검사 모두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모들은 교사에 비해 검사도구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준비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외의 다른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준비는 중요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검사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준비도의 올바른 개념 및 범주를 살피고 부모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유아에게 효과적인지를 모색함으로써 조금씩 개선 가능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준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진학 준비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련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교사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감도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쳤던 유아를 평가해보고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을 보완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

다. 유아의 부모와 상담기간에 혹은 학기마다 준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유아교사의 응답이 위와 같은 의견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어 교사의 요구에 걸맞은 검사도구와 교사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준비도 검사 실제와 관련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는 준비도 검사를 실시할 사람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각기 다른 대상을 꼽았으나 그 대상을 지목한 이유에서 필수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검사를 실시할 사람은 유아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유아의 흥미나 성향, 발달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준비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유아의 준비도를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활용 가능한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부모는 찾기 쉽지 않으며, 현장에 파견된 전문검사자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을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유아교사의 경우 교육을 통해 유능한 검사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장기간 유아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유아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도구의 특성을 습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는 학교준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들이 만5세 학년 초와 학년 말에 검사를 실시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검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자녀 부모와 학령기자녀 부모,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준비도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포괄적인 범주를 갖는 학교준비도 검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준비도 검사를 통해 유아의 발달 및 기술의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와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 설정 및 검사도구 개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져야 한다(Youn, 1994). Kagan(1990)은 학교준비도 검사가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대비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진정한 배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준비도 검사는 유아의 부족한 부분과 결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학교준비도에 대한 개념 및 접근 방법은 학교준비수준 낮은 유아를 선별해 내는 것이 아닌 유아의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학교준비도 검사에 관심을 갖고 실시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사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유아의 능력과 부모로부터 얻는 유아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유아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학교준비도 결과를 유아의 부모,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

관과 초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유가 개인 차원 혹은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에 학교준비도는 교육 정책에 주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학교준비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데, 우선 선택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개방형 질문에 선택적으로 응답하다보니 심층적인 응답을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즉, 부모와 교사 각각을 면담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질적인 자료의 부재가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설문문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교육전문가의 의견은 또 다른 영향이나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부모와 교사들을 심층 면담하여 학교 준비도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5-79.
- Chi, S. A., Jung, D. H., Jung, H. E., Ahn, J. S.,

- & Park, E. Y. (2006). A comparis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arents', and elementary teachers'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read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1), 227-249.
- Choi, O. H. (2001). Study on the learning readiness of the first graders in the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learn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orea.
- Choi, H. C. (1995). Learning Readiness Inspection misuse Study : Gesell Readiness Tes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1, 83-103.
- Crenson, G. A. (2001). Children Entering School Ready to Learn : School Readiness Baseline Information. Preliminary Report, School Year 2000-01.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Baltimor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FD 450 920)
- Crinic, K., & Lamberty, G. (1994). Reconsidering School Readness : conceptual and Applied Perspectiv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2), pp. 99-105.
- Gordon, N.J. (1982).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Readiness(Vol 3). In H.E. Mitzel (Eds.). N.Y. : The Free Press.
- Gredler, G. R. (1992). School readiness : Assessment and educational issues. Brandon, VYT :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mpany, Inc.
- Hill, N. E. (2001). Parenting and academic socialization as they relate to school readiness : The roles of ethnicity and family incom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686-697.
- Huffman, L. C., Mehlinger, S. L., & Kerivan, A. S. (2000). Risk Factors for Academic and Behavioral Problems at the Beginning of School. In Off to a good start : *Research on the risk factors for early school problems and selected federal policies affecting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ir readiness for school*.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Im, I. D., Ko, J. R. & Lee, H. S., (1968). Learning Readiness Inspection conducted Guidelines ; For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Seoul; Centr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Janus, M., & Duku, E. K. (2006). School readiness as the outcome of early child development : Relation to family factor. *ISSBD*. International Conference Kit.
- Kagan, Sheron L. (1990). Readiness 2000 : Rethinking rhetoric and responsibility. Phi Delta Kappan, Dec, 272-279.
- Kim, Y. S. (2003). Study on extraction of school readiness elements for elementary first gra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J. K., & Yeo, K. E. (1978). The mentally retarded child Discrimination : Screening test for 1st graders. Seoul : Society of Jahaeng.
- Kwon, Y. R. (1998) Validation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Phelps Early Childhood Learning Read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2), 1-19.
- Lee, K. S. (1986). The Relationship of Home Environment Variables and Basic Learning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S., & Kim, S. I. (1981). *The Study of Learning Readiness of Kindergarten Children. (II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134.
- Lee, E. H. (1979). Research for standardization of school readines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7(1), 49-60.
- Palemo, F., Hanish, L. D., Martin, C. L., Fabes, R. A., & Reiser, M. (2007). Preschooler's academic Readiness : What role does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play?. *Early Childhood Reacher Quaterly*, 22, 407-422.
- Park, H. J., Kang, H. W., & Chang, M. L. (1987). A Development of learning Readiness Test for Preschooler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R 87-39.
- Park, H. S. (2004). Teachers' Recognition and Level of Demand Regard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leaning Readiness for Educational Continuity Betwee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S. (1980). A report on Promoting Readiness Theory. *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6, 5-18.
- Park, Y. J. (2007).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for Kindergartener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ndis, M. (2001). School Readniss or School's Readiness?. "Thinking Classroom" *Inte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nd Open Society Institute*, 3, pp. 23-28.
- Pestalozzi, Johann H (1898). How Gertrude Teaches Her Children, trans. Lucy Holland and F.C. Turner.
- Lee, J. H., Jung, S. A., & Lee, M. J. (2003). Analysis of Problems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Private Kindergarten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Mirae Education Research*, 10(2), 341-364.
- Snow, C. B., Burns, M. S., & Griffin, P. (1998). *Preventing reading difficulties in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tional Research Council.
- Woo, H. K., & Kwon, H. J. (2010). A Case Study on the Meanings of Preschoolers, Parents and Childcare Teachers' School Readiness and Postponement of Entering School .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5(1), pp. 23-50.
- Yun, M. H. (1994). Learning Readi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 pp. 5-29.
- Yun, M. H. (1995).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Study of Learning Readines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3(1). pp. 117-142.

---

2012년 12월 31일 투고, 2013년 3월 28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